

제5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해설

정답표

1	2	3	4	5
⑤	①	④	②	②
6	7	8	9	10
①	④	④	④	③
11	12	13	14	15
⑤	②	①	①	④
16	17	18	19	20
⑤	③	①	③	①
21	22	23	24	25
④	③	③	②	④
26	27	28	29	30
②	②	①	②	⑤
31	32	33	34	35
④	①	⑤	①	②
36	37	38	39	40
③	⑤	②	③	②
41	42	43	44	45
⑤	③	③	①	⑤
46	47	48	49	50
③	②	①	⑤	⑤

01 -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1.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
- ② 반달 돌칼을 사용하여 벼를 수확하였다.
- ③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 ④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 ⑤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정답> ⑤

'시간을 품은 돌, (가) 시대로의 여행'이라는 제목 아래 초대의 글이 제시되어 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찌개, 찌르개 등 뿔석기를 처음 사용한 (가) 시대 특별전을 마련하였다. 동아시아에 찌개 문화만 존재했다는 기존 학설을 뒤집은 연천 전곡리 출토 주먹도끼도 전시하니 많은 관람 바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 시대'는 구석기 시대임을 알 수 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오답 해설>

- ①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은 것은 신석기 시대의 일이다.
- ② 반달 돌칼을 사용하여 벼를 수확한 것은 청동기 시대의 일이다.
- ③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돌을 축조한 것 역시 청동기 시대의 일이다.
- ④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을 제작한 것은 초기 철기 시대의 일이다.

02 - 삼한

2.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 ② 혼인 풍습으로 서옥제가 존재하였다.
- ③ 여러 가(加)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 ④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는 12배로 갚게 하였다.
- ⑤ 부족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라는 풍속이 있었다.

정답> ①

왼쪽 말풍선에 '이 나라에는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했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5월과 10월에 하늘에 제사 지내는 풍습*도 있었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천군'과 '소도', 5월과 10월에 제사(계절제)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는 점에서 밑줄 그은 '이 나라'는 삼한임을 알 수 있다. 삼한에는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오답 해설>

- ② 혼인 풍습으로 서옥제가 존재한 나라는 초기 국가, 고구려이다.
- ③ 여러 가(加)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한 나라는 초기 국가, 부여이다.
- ④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는 12배로 갚게 한 나라는 초기 국가, 부여와 고구려이다(1책 12법).
- ⑤ 부족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라는 풍속*이 있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동예이다.

*풍속(風俗)이란 옛날부터 그 사회(나라)에 전해 오는 생활 전반에 걸친 습관 따위를 이르는 말이다. 또 풍습(風習)이란 풍속과 습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그냥 별도로 구분할 필요없이 풍습과 풍속은 사실상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된다.

03 - 4~6세기의 역사적 사실들

3.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

- (가) 온달이 왕에게 아뢰기를, "신라가 한강 이북 땅을 빼앗아 군현으로 삼았습니다. …… 저에게 군사를 주신다면 단번에 우리 땅을 반드시 되찾겠습니다."라고 하였다.
- (나) 10월에 백제 왕이 병력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 왔다. 왕이 군대를 내어 막다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 이달 23일에 서거하였다.
- (다) 9월에 왕이 병력 3만 명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략하여 도읍 한성을 함락하였다. 백제 왕 부여경을 죽이고 남녀 8천 명을 포로로 잡아 돌아왔다.

-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 ③ (나) - (가) - (다) ④ (나) - (다) - (가)
- ⑤ (다) - (나) - (가)

정답> ④

(가)에 '온달이 왕에게 아뢰기를, 신라가 한강 이북 땅을 빼앗아 군현으로 삼았습니다. …… 저에게 군사를 주신다면 단번에 우리 땅을 반드시 되찾겠습니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는 온달(?~590)이 590년(고구려 영양왕 원년)에 영양왕에게 자청하여 신라 진흥왕에 의해 복속된 죽령(경북 영주와 충북 단양 사이에 있는 고개) 이북의 땅을 회복하겠다고 자청하여 출전한 일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출전한 온달은 아단성(지금의 서울 아차성) 아래에서 전사하였다.

(나)에는 '10월에 백제 왕이 병력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왔다. 왕이 군대를 내어 막다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 이달 23일에 서거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백제 근초고왕(재위 346-375, 제13대)의 공격으로 고구려의 고국원왕(재위 331-371 제16대)이 전사한 일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371).

(다)에는 '9월에 왕이 병력 3만 명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략하여 도읍 한성을 함락하였다. 백제 왕 부여경을 죽이고 남녀 8천 명을 포로로 잡아 돌아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구려 장수왕(재위 413-491, 제20대)의 공격으로 백제 개로왕(부여경)[재위 455-475, 제21대]이 전사한 일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475).

이상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면, '(나)-(다)-(가)'가 된다.

04 - 백제 무령왕 대의 역사적 사실

4. (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 ② 중국 남조의 양과 교류하였다.
- ③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 ④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다.
- ⑤ 사비로 천도하고 행정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정답> ②

'백제 제25대 왕인 (가)의 무덤 발굴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공주시에서 열린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가)은/는 백가의 난을 평정하고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그의 무덤은 피장자와 축조 연대가 확인된 유일한 백제 왕릉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는 백제의 제25대 왕인 무령왕(재위 501-523)임을 알 수 있다.

무령왕은 중국 남조의 양(梁)과 교류하였다(양으로부터 영동대장군의 관직을 받음).

오답 해설>

- ①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한 백제의 왕은 무왕(재위 600-641, 제30대)이다(639, 무왕 40).
- ③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한 백제의 왕은 근초고왕(재위 346-375, 제13대)이다(375, 근초고왕 30).
- ④ (동진의)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한 백제의 왕은 침류왕(재위 384-385)이다(384, 침류왕 원년).
- ⑤ 사비로 천도하고 행정 조직을 재정비한 백제의 왕은 성왕(재위 523-554, 제26대)이다(538, 성왕 16).

05 - 나당 동맹의 체결

5.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고구려 왕이 "마목현과 죽령은 본래 우리나라 땅이니 만약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돌아가지 못하리라."라고 말하였다. 김춘추가 "국가의 영토는 신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은 감히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니, 왕이 분노하여 그를 가두었다.

(나) 관창이 "아까 내가 적진에 들어가서 장수를 베고 깃발을 빼앗지 못한 것이 심히 한스럽다. 다시 들어가면 반드시 성공하리라."라고 말하였다. 관창은 적진에 돌입하여 용감히 싸웠으나, 계백이 그를 사로잡아 머리를 베어 말 안장에 매달아서 돌려보냈다. 이를 본 신라군이 죽음을 각오하고 진격하니 백제 군사가 대패하였다.

- ① 안승이 보덕국 왕으로 임명되었다.
- ② 신라가 당과 군사 동맹을 체결하였다.
- ③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왕이 피살되었다.
- ④ 흑치상지가 임존성에 군사를 일으켰다.
- ⑤ 부여풍이 백강에서 왜군과 함께 당군에 맞서 싸웠다.

정답> ②

(가)에 '고구려 왕이, 마목현과 죽령은 본래 우리나라 땅이니 만약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돌아가지 못하리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김춘추가, 국가의 영토는 신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은 감히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니, 왕이 분노하여 그를 가두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는 김춘추(604~661, 이후 태종 무열왕)가 고구려에 동맹을 요청하려 갔다가 거부당한 일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642). 참고로 이때의 고구려 왕은 보장왕(재위 642-668, 제28대)이었지만 김춘추의 제안이 거부당한 것은 당시 쿠데타로 실권을 잡고 있던 연개소문(?~665) 때문이었다.

(나)에는 '관창이, 아까 내가 적진에 들어가서 장수를 베고 깃발을 빼앗지 못한 것이 심히 한스럽다. 다시 들어가면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관창이 적진에 돌입하여 용감히 싸웠으나, 계백이 그를 사로잡아 머리를 베어 말 안장에 매달아서 돌려보냈다. 이를 본 신라군이 죽음을 각오하고 진격하니 백제 군사가 대패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신라의 좌장군 품일의 아들인 화랑 관창(645~660)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제시된 자료는 신라와 백제의 황산벌 전투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660).

신라가 당과 군사 동맹을 체결한 것은 648년(신라 진덕 여왕 2)의 일이다(나당 동맹).

오답 해설>

- ① 안승(?~?)이 보덕국 왕으로 임명된 것은 신라 문무왕 14년인 674년의 일이다.
- ③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왕(성왕)이 피살된 것은 554년의 일이다. 관산성은 지금의 충북 옥천 지역에 위치하였다.
- ④ 흑치상지(630?~689)가 임존성에 군사를 일으킨 것은 백제 멸망 직후인 660년의 일이다(백제 부흥 운동). 임존성은 지금의 충남 예산 지역에 위치하였다.
- ⑤ (백제 의자왕의 다섯째 아들인) 부여풍(?~?)이 백강에서 왜군과 함께 당군에 맞서 싸운 것은 663년의 일이다(백제 부흥 운동). 백강은 지금의 금강 하구(또는 동진강 하구)로 추정하고 있다.

06 - 통일 신라 말의 사실들

6. 다음 가상 대화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궁예가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었다.
- ② 독서삼품과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 ③ 왕의 장인인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켰다.
- ④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 왕위를 세습하였다.
- ⑤ 해공왕이 귀족 세력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정답> ①

왼쪽 말풍선에 '며칠 전 붉은 바지를 입은 도적들이 나라의 서남쪽에서 봉기하였다고 하네'라는 말이 나와 있다. 오른쪽 말풍선에는 '적고적 말이지? 7년 전에는 원종과 애노가 세금 독촉 때문에 봉기하더니, 요즘 들어 나라에 변란이 자주 일어나 걱정이구만'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상 대화는 통일 신라 말의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적고적의 난이 일어난 것은 통일 신라 진성 여왕 10년인 896년의 일이며, 원종과 애노의 난 역시 진성 여왕 3년인 889년에 발생한 사건이다.

궁예(?~918)가 국호를 태봉으로 바꾼 것은 911년의 일이다(연호는 '수덕만세').

오답 해설>

- ② 독서삼품과가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통일 신라 원성왕 4년인 788년의 일이다.
- ③ 왕의 장인인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통일 신라 신문왕 원년인 681년의 일이다.
- ④ 태종 무열왕(재위 654-661, 제29대)의 즉위 이후 그의 직계 자손이 왕위를 세습하였다. 참고로 원성왕 대(재위 786-798, 제38대) 이후에 즉위하는 왕들은 원성왕의 후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원성왕의 즉위를 기점으로 무열왕계에서 원성왕계[내물왕계]로 교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⑤ 해공왕(재위 765-780, 제36대)이 귀족 세력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780년의 일이다. 이후 통일 신라는 155년 동안 20여 명의 왕이 교체되는 등 극심하게 동요하였다.

07 - 통일 신라 시대의 경제 모습

7. 밑줄 그은 '인물'이 활동한 시기의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유통되었다.
- ② 중국의 농서인 농상집요가 소개되었다.
- ③ 면화, 고추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다.
- ④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 무역이 전개되었다.
- ⑤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기 위해 경시서가 설치되었다.

정답> ④

'이곳은 새롭게 중건된 산동반도의 적산 법화원입니다. 이 사찰을 창건한 인물에 대해 말해 주세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대화창에는 '당에 건너가 군인으로 활약했어요', '왕위 쟁탈전에 가담하여 반란을 일으켰어요', '문성왕이 보낸 자객에게 살해당했어요'라는 말들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인물'은 해상왕 장보고(?~846)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장보고가 활동한 시기에는 (전남 완도에 설치된)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 무역이 전개되었다[828(흥덕왕 3)~851(문성왕 13)].

오답 해설>

- ①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유통된 것은 고려 시대의 일이다(1101, 고려 숙종 6).
- ② 중국의 농서인 농상집요가 (이암에 의해) 소개된 것은 고려 공민왕 대의 일이다(1372, 공민왕 21). 목화 재배와 양잠 등 중국 화북 지방의 농업을 소개하고 있다.
- ③ 면화, 고추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⑤ 경시서의 관리들이 수도[개경]의 시전을 감독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목종 대(재위 997-1009, 제7대)로 추정된다(경시서 자체는 그 이전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짐작). 그러다 고려 문종 대(재위 1046-1083, 제11대)에 이르러 경시서의 직제가 확대되었다. 이후 경시서는 조선 초에도 계속 존속되다가 세조 12년(1466)에 관제를 개혁할 때 평시서(平市署)로 개칭되었다.

08 - 발해

8.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한국사 온라인 강좌>

우리 연구소에서는 (가)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강좌 주제 ■

제1강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나타난 역사의식
 제2강 정혜 공주 무덤의 구조로 알 수 있는 고분 양식
 제3강 장문휴의 등주 공격을 통해 본 대외 인식
 제4강 인안, 대흥 연호 사용에 반영된 천하관

■ 일시: 2021년 6월 매주 목요일 19:00~21:00
 ■ 방식: 화상 회의 플랫폼 활용
 ■ 주관: △△연구소

<보 기>

ㄱ. 철전인 건원중보를 발행하였다.
 ㄴ.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로 거래되었다.
 ㄷ. 지방관을 감찰하고자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ㄹ. 거란도, 영주도 등을 통해 주변국과 교류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우리 연구소에서는 (가)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마련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강좌 주제로 '제1강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나타난 역사의식', '제2강 정혜 공주 무덤의 구조로 알 수 있는 고분 양식', '제3강 장문휴의 등주 공격을 통해 본 대외 인식', '제4강 인안, 대흥 연호 사용에 반영된 천하관'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 국가'는 발해임을 알 수 있다.
 ㄴ.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로 거래되었다. 옳은 설명이다.
 ㄷ. 거란도, 영주도 등을 통해 주변국과 교류하였다. 발해의 대외 교통로를 일컫는 것으로, 옳은 설명이다. 참고로 발해에는 5개의 주요 대외 교통로가 있었는데, 당과는 조공도·영주도가, 거란과는 거란도가, 일본과는 일본도가, 신라와는 신라도가 있었다.
오답 해설>
 ㄱ. 철전인 건원중보가 발행된 것은 고려 성종 15년인 996년의 일이다.
 ㄷ. 지방관을 감찰하고자 외사정을 파견한 것은 신라 문무왕 13년인 673년의 일이다.

09 -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 삼존상

9.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정답> ④
 '국보로 지정된 이 마애불은 둥근 얼굴 윤곽에 자비로운 인상을 지녀 백제의 미소라고 불린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중국을 오가던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교통로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은 백제의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 삼존상(서산 마애 삼존불, 국보 제84호)임을 알 수 있다(선지 ④). 충남 서산시 운산면의 가야산 절벽에 새겨져 있으며, '서산 마애 석불' 또는 '운산 마애 석불'이라고도 부른다.
오답 해설>
 ①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 입상이다. 보물 제115호이다. 고려 초기의 불상으로(11세기경 제작 추정), 불두(佛頭)를 따라 제작하여 불신(佛身)이 새겨진 암벽 위에 얹는 형식은 고려 시대에 널리 유행한 형식이다.
 ②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 불상군이다. 국보 제312호이다. 불단에 사방불을 모시고, 뒤쪽의 병풍바위에는 삼존을 새겼다. 사방불은 방향에 따라 손 모양이 다르며, 삼존은 조각 수법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일 신라 시대에 조성된 불상이다.
 ③ 영암 월출산 마애여래 좌상이다. 국보 제144호이다. 암벽을 불감 형태로 파고 그 안에 높은 돌을새김으로 조각한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마애불이다. 네모진 얼굴은 신체에 비해서 유난히 큰 편인데 약간 치켜올린 눈꼬리와 짝 다문 입 등으로 근엄하고 박력있는 느낌을 준다. 신체 각부의 비례가 부자연스럽고 조각 수법이 딱딱하여 고려 시대의 지방적 석불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⑤ 파주 용미리 마애여래 입상이다. 보물 제93호이다. 천연암벽을 적절히 활용하여 불신(佛身)을 표현하였다. 불두(佛頭)는 따로 만들어 얹었다. 왼쪽의 마애불은 둥근 갓을 쓰고 왼손을 어깨높이로, 오른손은 가슴 높이로 들어 연꽃 줄기를 붙잡고 있다(미륵으로 추정). 오른쪽의 마애불에서는 네모난 갓을 쓰고 합장하고 있다. 옷자락의 흐름이 바위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10 - 고려 광종 대의 역사적 사실

10.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시 기	내 용	원문이미지
1년	연호를 광덕으로 정하다	원문이미지
3년	후주에 토산물을 보내다	원문이미지
11년	백관의 공복을 정하다	원문이미지
19년	해거와 탄문을 국사와 왕사로 삼다	원문이미지

- ①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하였다.
- ②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통보를 발행하였다.
- ③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였다.
- ④ 거란 침입에 대비하여 개경에 나성을 축조하였다.
- ⑤ 국자감에 서적포를 두어 출판을 담당하게 하였다.

정답> ③

고려 시대 재위 1년에 '연호를 광덕으로 정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재위 3년에 '후주에 토산물을 보내고', 재위 11년에 '백관의 공복을 정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재위 19년에 '해거와 탄문을 국사와 왕사로 삼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왕은 고려의 제4대 왕인 광종(재위 949-975)임을 알 수 있다.

광종은 재위 7년인 956년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한 것은 고려 성종 대의 일이다(983, 성종 2).
- ②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통보를 발행한 것은 고려 숙종 대의 일이다(각 1097(숙종 2)/1102(숙종 7)).
- ④ (강감찬의 건의로) 거란 침입에 대비하여 개경에 나성을 축조한 것은 고려 현종 대의 일이다[1009(현종 즉위년)~1029(현종 20)].
- ⑤ 국자감에 서적포를 두어 출판을 담당하게 한 것은 고려 숙종 대의 일이다(1101, 숙종 6).

11 - 고려의 어사대

11.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시정(時政)을 논박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규찰과 탄핵 업무를 담당하였다. 국초에는 사헌대(司憲臺)라 불렸다. 성종 14년에 (가) (으)로 고쳤으며 [관원으로] 대부, 중승, 시어사, 전중(殿中)시어사, 감찰어사가 있었다.

- 「고려사」 -

- ① 국정을 총괄하는 중앙 관서였다.
- ② 무신 집권기 최고 권력 기구였다.
- ③ 사간원, 홍문관과 함께 삼사로 불렸다.
- ④ 원 간섭기에 도평의사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 ⑤ 소속 관원이 낭사와 함께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정답> ⑤

'시정(時政)을 논박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규찰과 탄핵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국초에는 사헌대(司憲臺)라 불렸다. 성종 14년(995)에 (가)(으)로 고쳤으며 [관원으로] 대부, 중승, 시어사, 전중(殿中)시어사, 감찰어사가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 기구'는 어사대임을 알 수 있다. 어사대의 소속 관원은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을 이루어) 언론권(서경권, 간쟁권, 봉박권)을 행사하였다.

오답 해설>

- ① 고려 시대에 국정을 총괄하는 중앙 관서는 중서문하성이다.
- ② 무신 집권기 최고 권력 기구는 교정도감(敎定都監)이다(1209, 고려 희종 5). 참고로 정중부, 이익민 집권기(각 1170-1179/1183-1196)에는 최고 무신 합좌 기구인 중방(重房)이 사실상의 최고 권력 기구였다.
- ③ 사간원, 홍문관과 함께 삼사로 불린 기구는 조선의 사헌부이다.
- ④ 원 간섭기에 도평의사사로 명칭이 바뀐 기구는 (국방 회의 기구인) 도병마사이다(1011, 현종 2).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명칭이 바뀐 것은 충렬왕 5년인 1279년의 일이다.

12 - 고려 공민왕의 정책

12. 밑줄 그은 '이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곳에는 이 왕과 그의 왕비인 노국 대장 공주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종묘에 고려 왕의 신당이 조성되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이 왕은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숙청하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습니다.



- ① 만권당을 두어 원의 학자들과 교유하였다.
- ②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변정도감을 운영하였다.
- ③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 ④ 정계와 계백묘사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 ⑤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정답> ②

'이곳에는 이 왕과 그의 왕비인 노국 대장 공주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조선의 종묘에 고려 왕의 신당이 조성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 왕은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숙청하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이 왕'은 고려의 제31대 왕인 공민왕(재위 1351-1374)임을 알 수 있다.

공민왕은 신돈(?~1371)을 등용하여 전민변정도감을 운영하였다(1366, 공민왕 15).

오답 해설>

- ① (상왕으로 물러난 이후 원의 도움인 북경에) 만권당을 두어 원의 학자들과 교유한 왕은 충선왕(재위 1298, 1308-1313, 제26대)이다(1314, 충숙왕 원년).
- ③ (중국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실시한 왕은 광종(재위 949-975, 제4대)이다(958, 광종 9).
- ④ 정계와 계백묘사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한 왕은 태조 왕건(재위 918-943)이다(936, 태조 19).
- ⑤ 최승로(927~989)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통치 체제를 정비한 왕은 성종(재위 981-997, 제6대)이다(982, 성종 원년).

13 - 거란에 대한 고려의 대응(광군 조직)

13. (가) 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2점]

(가) 임금이 강조를 토벌한다는 구실로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흥화진을 포위하였다. 양규는 도순검사가 되어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 …… (가)이/가 강조의 편지를 위조하여 흥화진에 보내어 항복하라고 설득하였다. 양규가 말하기를, "나는 왕명을 받고 온 것이지 강조의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항복하지 않았다.

- ① 광군을 조직하여 침입에 대비하였다.
- ② 윤관을 보내 동북 9성을 개척하였다.
- ③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포를 제작하였다.
- ④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장기 항전을 준비하였다.
- ⑤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복을 수복하였다.

정답> ①

'(가) 임금이 강조를 토벌한다는 구실로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흥화진을 포위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양규는 도순검사가 되어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 …… (가)이/가 강조의 편지를 위조하여 흥화진에 보내어 항복하라고 설득하였다. 양규가 말하기를, 나는 왕명을 받고 온 것이지 강조의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항복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강조(의 정변)'와 '양규'가 제시된 것으로 보아, 주어진 자료는 거란의 제2차 침입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1010, 고려 현종 원년). 고려의 제3대 왕인 정종(재위 945-949)은 재위 2년인 947년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광군을 조직한 바 있다.

오답 해설>

- ② 윤관(?~1111)이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9성을 개척한 것은 고려 예종 2년인 1107년의 일이다.
- ③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포를 제작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우왕 3년인 1377년의 일이다.
- ④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몽골에 대한) 장기 항전을 준비한 것은 고려 고종 19년인 1232년의 일이다(몽골의 제2차 침입의 빌미가 됨).
- ⑤ (몽골이 차지하고 있던)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복을 수복한 것은 고려 공민왕 5년인 1356년의 일이다.

14 - 고려 시대의 경제 모습

14.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 11월에 팔관회가 열렸다. 왕이 신봉루에 들러 모든 관료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다. …… 송의 상인과 탐라국도 특산물을 바쳤으므로 자리를 나누어 음악을 관람하게 하였는데, 이후 상례(常例)가 되었다.

○ 대식국의 객상(客商) 보나합 등이 와서 …… 물품을 바쳤다. 관리에게 명하여 객관에서 우대하며 대접하게 하고, 돌아갈 때에는 황금과 명주를 넉넉하게 하사하였다.

- ①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 ② 송상이 전국 각지에 송방을 설치하였다.
- ③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있었다.
- ④ 신라방을 형성하여 중국과 활발히 교역하였다.
- ⑤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정답> ①

위의 자료에 '11월에 팔관회가 열렸다. 왕이 신봉루에 들러 모든 관료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다. …… 송의 상인과 탐라국도 특산물을 바쳤으므로 자리를 나누어 음악을 관람하게 하였는데, 이후 상례(常例)가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아래의 자료에 '대식국의 객상(客商) 보나합 등이 와서 …… 물품을 바쳤다. 관리에게 명하여 객관에서 우대하며 대접하게 하고, 돌아갈 때에는 황금과 명주를 넉넉하게 하사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팔관회', '송의 상인', '대식국'이라는 용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고려 시대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려 시대에는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오답 해설>

- ② 송상이 전국 각지에 송방을 설치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③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도읍인 경주에) 둔 것은 신라 지증왕 10년인 509년의 일이다.
- ④ 신라방을 형성하여 중국과 활발히 교역한 것은 통일 신라 시대의 일이다(8~9세기).
- ⑤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이 폐지된 것은 조선 정조 때의 일이다[금난전권, 1791(정조 15)].

15 - 망이·망소이의 난(공주 명학소의 난)

15.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 명학소의 백성 망이·망소이 등이 무리를 모아서 산행병마사라고 자칭하고는 공주를 공격하여 함락하였다.
- 망이의 고향인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시키고 양수탁을 현령으로, 김윤실을 현위로 임명하여 그들을 달래었다.

1104	1126	1135	1170	1231	1270
	(가)	(나)	(다)	(라)	(마)
별무반 조직	이자겸의 난	요청의 난	무신 정변	몽골의 침입	개경 환도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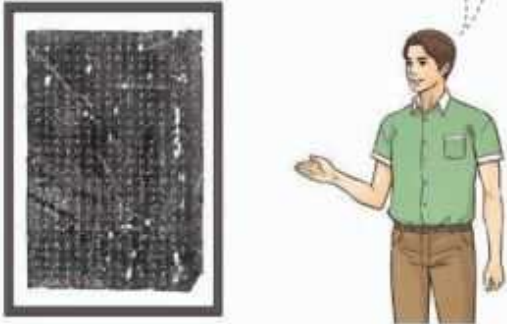
정답> ④

위의 자료에 '명학소의 백성 망이·망소이 등이 무리를 모아서 산행병마사라고 자칭하고는 공주를 공격하여 함락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아래의 자료에 '망이의 고향인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시키고 양수탁을 현령으로, 김윤실을 현위로 임명하여 그들을 달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망이·망소이의 난(공주 명학소의 난)이 발생한 것은 고려 명종 6년인 1176년의 일이다. 연표에서는 (라) 시기에 해당한다.

16 - 대각국사 의천

16.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이것은 개경 흥왕사 터에서 출토된 대각국사의 묘지명 탁본입니다. 여기에는 문종의 넷째 아들인 그가 송에 유학하고 돌아온 후 국청사를 중심으로 천태종을 개창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① 정혜쌍수와 돈오점수를 주장하였다.
- ② 무애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힘썼다.
- ③ 황룡사 구층 목탑의 건립을 건의하였다.
- ④ 백련사 결사를 통해 불교 정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⑤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불교 경전 주석서를 편찬하였다.

정답> ⑤

'이것은 개경 흥왕사 터에서 출토된 대각국사의 묘지명 탁본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여기에는 문종의 넷째 아들인 그가 송에 유학하고 돌아온 후 국청사를 중심으로 천태종을 개창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그'는 대각국사 의천(1055~1101)임을 알 수 있다.

의천은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불교 경전 주석서를 편찬하였다(1086, 선종 3).

오답 해설>

- ① 정혜쌍수와 돈오점수를 주장한 인물은 불일보조국사 지눌(1158~1210)이다.
- ② 무애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힘쓴 인물은 신라의 화쟁국사 원효(617~686)이다.
- ③ 황룡사 구층 목탑의 건립을 건의한 인물은 신라의 대국통, 자장(590~658)이다(643, 선덕 여왕 12). 황룡사 구층 목탑이 실제로 완공된 것은 646년(선덕 여왕 15)의 일이다.
- ④ 백련사 결사를 통해 불교 정화 운동을 전개한 인물은 원묘국사 요세(1163~1245)이다. 요세는 참회에 바탕을 둔 법화 신앙을 강조하였다.

17 - 개성 경천사지 십층 석탑

17.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정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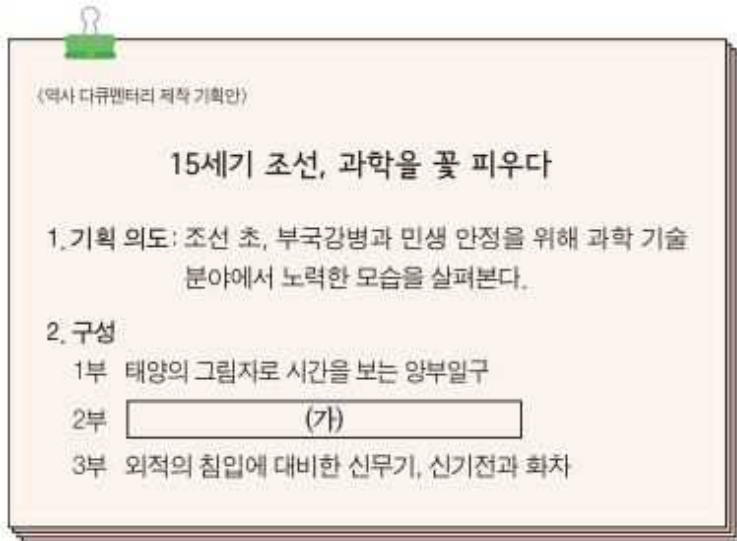
'우리나라 불교 문화유산'이라는 주제 아래 맨왼쪽 말풍선에 '이 탑은 개성에 있었는데 지금 국립 중앙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는 말이 나와 있다. 가운데 말풍선에는 '원의 영향을 받은 다각 다층의 대리석 탑이다'는 말이, 맨오른쪽 말풍선에는 '(서울) 원각사지 십층 석탑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대화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은 국보 제86호인, 개성 경천사지 십층 석탑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안동 신세동 칠층 전탑이다(통일 신라, 8세기). 국보 제16호이다.
- ② 경주 불국사의 다보탑이다(통일 신라, 8세기). 국보 제20호이다.
- ④ (복구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다(639, 백제 무왕 40). 국보 제11호이다.
- ⑤ 평창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다(고려 전기). 국보 제48-1호이다.

18 - 15세기 조선의 과학 기술

18.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설계한 거중기
- ② 국산 약재와 치료법을 소개한 향약집성방
- ③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 내편
- ④ 활판 인쇄술의 발달을 가져온 계미자와 갑인자
- 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

정답> ①

'15세기 조선, 과학을 꽃 피우다'는 제목 아래 기획 의도로 '조선 초, 부국강병과 민생 안정을 위해 과학 기술 분야에서 노력한 모습을 살펴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구성으로 '1부 태양의 그림자로 시간을 보는 앙부일구', '2부 (가)', '3부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신무기, 신기전과 화차'가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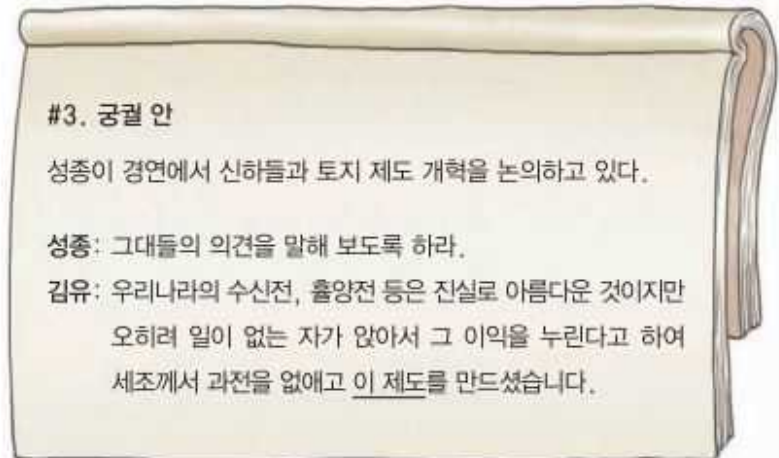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다산 정약용(1762~1836)이 거중기를 설계한 것은 정조 13년인 1789년의 일이다. 한강에 배다리를 놓는데 사용하였고, 특히 1794년부터 쌓기 시작한 수원성에 거중기가 동원되었다.

오답 해설>

- ② 국산 약재와 치료법을 소개한 (의학서인) 향약집성방이 편찬된 것은 세종 15년인 1433년의 일이다.
- ③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 내편이 편찬된 것은 세종 26년인 1444년의 일이다.
- ④ 활판 인쇄술의 발달을 가져온 계미자가 주도된 것은 태종 3년(1403)이고, 갑인자가 주도된 것은 세종 16년(1434)의 일이다.
- 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이 편찬된 것은 세종 11년인 1429년의 일이다.

19 - 직전법

19. 밑줄 그은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전지와 시지를 등급에 따라 지급하였다.
- ②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 부담액을 고정하였다.
- ③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 ④ 관리에게 녹봉을 지급하고 수조권을 폐지하였다.
- ⑤ 개국 공신에게 인성, 공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정답> ③

#3. 궁궐 안에서 '성종이 경연에서 신하들과 토지 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성종이 의견을 말해 보도록 하라는 명에 김유가 '우리나라의 수신전, 휴양전 등은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지만 오히려 일이 없는 자가 많아서 그 이익을 누린다고 하여 세조께서 과전을 없애고 이 제도를 만드셨습니다'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이 제도'는 세조 12년인 1466년에 시행한 직전법임을 알 수 있다.

직전법에서는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전지와 시지를 등급에 따라 지급한 토지 제도는 고려의 전시과이다.
- ②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 부담액을 (미곡 4두로) 고정한 것은 조선의 영정법이다(1635, 인조 13).
- ④ 관리에게 녹봉을 지급하고 수조권을 폐지한 것은 조선의 녹봉제이다(1556, 명종 11).
- ⑤ 개국 공신에게 인성, 공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한 것은 고려의 역분전이다(940, 태조 23).

20 - 단종 복위 운동

20. 다음 가상 대화의 배경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수양 대군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을 정리한다.
- ② 자의 대비 복상 문제로 전개된 예송을 알아본다.
- ③ 인물성동이론을 두고 전개된 호락논쟁을 조사한다.
- ④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동인이 입은 피해를 분석한다.
- ⑤ 인현 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장악한 사건을 파악한다.

정답> ①

왼쪽 말풍선에 '얼마 전 노산군이 이곳 영월에 유배를 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오른쪽 말풍선에는 '성삼문 등이 주도한 복위 운동에 연루되어 이곳으로 보내졌다'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상 대화의 배경은 단종 복위 운동(의 실패)임을 알 수 있다(1456, 세조 2). 여기서 노산군은 곧 단종(재위 1452-1455, 제6대)을 가리킨다.

수양 대군(세조)이 계유정난*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였다(1453, 단종 원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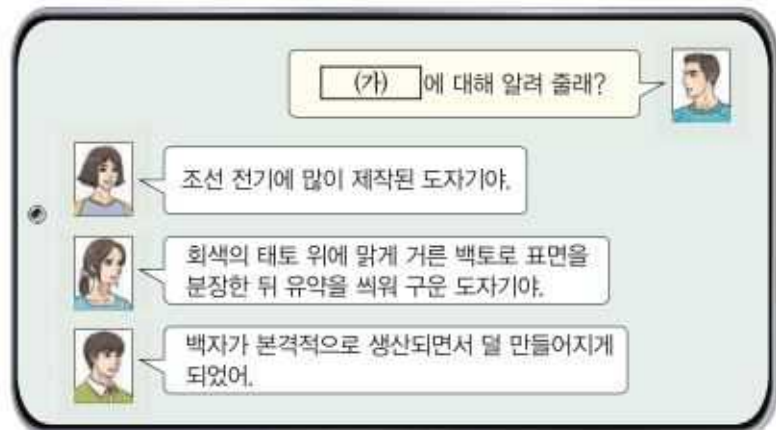
*계유정난: 후일 세조(재위 1455-1468, 제7대)로 등극하는 세종의 차남 수양 대군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하여 세종과 문종의 고명 대신이었던 김종서와 황보인 등을 살해하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

오답 해설>

- ② 자의 대비 복상 문제로 두 차례 예송이 전개되었다(1659(현종 즉위년)-기해예송, 1674(현종 15)-갑인예송]
- ③ 인물성동이론을 두고 (노론 내에서) 호락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주로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전반의 일이다.
- ④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동인이 피해를 입은 것은 선조 22년인 1589년의 일이다.
- ⑤ 인현 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장악한 것은 기사환국 때의 일이다(1689, 숙종 15).

21 - 분청사기

21.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정답> ④

'(가)에 대해 알려 줄래?'라는 질문이 나와 있고, 이어 '조선 전기에 많이 제작된 도자기야', '회색(또는 회흑색의) 태토 위에 맑게 거른 백토로 표면을 분장한 뒤 유약을 씌워 구운 도자기야'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백자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덜 만들어지게 되었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는 분청사기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분청사기는 분장회청사기(粉粧灰靑沙器)의 준말이다.

선지 ④가 분청사기 조화어문 편병이다. 분청사기 음각어문 편병이라고도 한다.

오답 해설>

- ①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이다(13세기 제작). 국보 제68호이다.
- ② 백자 청화 매죽문 향아리[호]이다(15세기 제작).
- ③ 청자 참외형 병이다(12세기 제작).
- ⑤ 발해의 삼채 향로['도기삼채수족세발향로(陶器三彩獸三足香爐)']이다(발해 도기 중 하나). 만주의 영안시 삼령 3호 무덤에서 출토되었다. 뚜껑이 있는 세발 달린 향로로, 화려한 다리 장식이나 뚜껑의 투각기법 등이 상당히 뛰어나다. 또한 황유·갈유·녹유 등의 조화가 당삼채와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는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22 - 정묘호란

22.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① 나선 정벌에 조총 부대가 동원되었다.
- ②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적군을 격퇴하였다.
- ③ 정봉수와 이립이 용골산성에서 항쟁하였다.
- ④ 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 등이 청에 인질로 끌려갔다.
- ⑤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비변사가 처음 설치되었다.

정답> ③

왼쪽 그림에 '지난달 후금에 투항한 강홍립의 죄를 물어야 한다'는 신하의 주장에 '알아서 처분할 것이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왕의 대답이 나와 있다. 명의 요청으로 강홍립을 파견하였으나 강홍립이 후금에 투항한 광해군 대의 일임을 알 수 있다(1619, 광해군 11). 오른쪽 그림에는 '항복을 받기 위한 단을 삼전도에 이미 쌓았으니, 내일 황제 폐하 앞에서 의식을 거행할 것이오'라는 말이 나와 있다. 병자호란 결과 조선 인조가 삼전도(지금의 서울 송파)에서 청 태종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한 '삼전도의 굴욕'과 관련된 일임을 알 수 있다(1637, 인조 15).

정봉수(1572~1645)와 이립(?~1627)이 용골산성에서 항쟁한 것은 정묘호란 때의 일이다(1627, 인조 5).

오답 해설>

- ① 나선 정벌에 조총 부대가 동원된 것은 효종 대의 일이다(두 차례, 각 1654(변급 통솔, 효종 5)/1658(신류 통솔, 효종 9)).
- ② 권율(1537~1599)이 행주산성에서 적군을 격퇴한 것은 임진왜란 때의 일이다(1593, 선조 26, 행주 대첩).
- ④ 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 등이 청에 인질로 끌려간 것은 병자호란에서의 패배 때문이다(1637, 인조 15).
- ⑤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비변사가 처음 (임시 군무 협의 기구로) 설치된 것은 중종 5년인 1510년의 일이다(3포 왜란으로 3포 폐쇄)

23 - 창덕궁

23. (가)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도성 내 서쪽에 있어 서궐로 불리었다.
- ②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 ③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이 설치된 곳이다.
- ④ 조선 물산 공진회 개최 장소로 이용되었다.
- ⑤ 인목 대비가 광해군에 의해 유폐된 장소이다.

정답> ③

'조선의 역대 왕들이 가장 많이 머문 궁궐, (가)'라는 제목이 나와 있다. 이어 지도와 사진으로 '부용정과 부용지(정원과 연못)', '후원 입구', '연경당(접견실)', '인정전(정전)', '돈화문(정문)'이 제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 종로구 율곡로 99'라는 주소도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는 창덕궁(昌德宮)임을 알 수 있다.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이 설치된 곳은 창덕궁이다(1776, 정조 즉위년).

오답 해설>

- ① 도성 내 서쪽에 있어 서궐로 불린 궁전은 경희궁이다. 본래는 경덕궁이라 불렸다. 참고로 경북궁은 북궐, 창덕궁과 창경궁은 동궐로 불렸다.
- ②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된 곳은 덕수궁(석조전)이다(1946.3-5). 덕수궁의 본래 이름은 경운궁이다.
- ④ (조선 총독부에 의해) 조선 물산 공진회가 개최된 장소는 경북궁이다(1915.9-10).
- ⑤ 인목 대비가 광해군에 의해 유폐된 장소는 덕수궁(석어당)이다(1613, 광해군 5, 계축옥사).

24 -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모습

24.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가만히 살펴보니, 최근 여자들이 서로 다투어 즐겨하는 것이 오직 패설(稗說)*을 숭상하는 일이다. 패설은 날로 달로 증가하여 그 종류가 이미 엄청나게 되었다. 세책가에서는 패설을 깨끗이 필사하여, 빌려 보는 자가 있으면 그 값을 받아서 이익으로 삼는다. 부녀들은 …… [패설을] 서로 다투어 빌려다가 온종일 허비하니 음식이나 술을 어떻게 만드는지, 베를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게 되었다.

- 「번암집」 -

*패설(稗說): 민간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주제로 한 소설

- ① 담배를 발에 심고 있는 농민
- ② 염포의 왜관에서 교역하는 상인
- ③ 장사에서 탈춤 공연을 벌이는 광대
- ④ 시사(詩社)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중인
- ⑤ 물주의 자금으로 광산을 경영하는 덕대

정답> ②

'가만히 살펴보니, 최근 여자들이 서로 다투어 즐겨하는 것이 오직 패설(稗說)*을 숭상하는 일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패설은 날로 달로 증가하여 그 종류가 이미 엄청나게 되었다. 세책가에서는 패설을 깨끗이 필사하여, 빌려 보는 자가 있으면 그 값을 받아서 이익으로 삼는다. 부녀들은 …… [패설을] 서로 다투어 빌려다가 온종일 허비하니 음식이나 술을 어떻게 만드는지, 베를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상황은 조선 후기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출처인 『번암집』은 정조 대에 우의정, 영의정을 역임한 채제공(1720~1799)의 시문집이다.

*패설(稗說): 민간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주제로 한 소설

염포(울산)에 왜관이 열린 것은 조선 전기인 세종 때의 일이다(3포 개항, 1426년(세종 8), 부산포가 이때 열리고 염포와 제포(창원, 내이포)는 10년 뒤인 1436년(세종 18)에 추가로 개방). 그런데 중종 5년(1510)에 일어난 '3포 왜란'으로 3포가 폐쇄되었고 2년 뒤인 임신약조(1512) 때 제포만 개항(이후 부산포로 이동)하고 염포의 왜관은 폐쇄되고 말았다.

오답 해설>

- ① 담배는 조선 후기에 널리 재배된 상품 작물이다.
- ③ 장사에서 탈춤 공연이 벌어진 것 역시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④ 중인들이 시사(詩社)를 조직하여 활동한 것 역시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⑤ 물주의 자금으로 광산을 경영하는 덕대가 등장한 것 역시 조선 후기의 일이다.

25 - (조선) 통신사

25. 밑줄 그은 '이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 해사록은 김세령이 이 사절단의 부사로 일본에 다녀온 후 작성한 책입니다. 여기에는 쓰시마, 교토를 거쳐 에도까지 간 여정, 당시 일본의 지형과 풍속, 쇼군을 만난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 ① 암행어사의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되었다.
- ② 해국도지, 영환지략을 국내에 소개하였다.
- ③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등으로 구분되었다.
- ④ 막부의 요청으로 파견되어 문물을 전하였다.
- ⑤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왔다.

정답> ④

'이 해사록(海槎錄)은 김세령이 이 사절단의 부사로 일본에 다녀온 후 작성한 책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여기에는 쓰시마, 교토를 거쳐 에도까지 간 여정, 당시 일본의 지형과 풍속, 쇼군을 만난 내용 등이 담겨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이 사절단'은 통신사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동명 김세령(1593~1648)이 일본에 통신사로 간 것은 인조 14년인 1636년의 일이다

통신사*는 일본 막부의 요청으로 파견되어 문물을 전하였다.

*통신사는 조선 시대 전 기간에 걸쳐 총 20회(조선 전기 8회, 조선 후기 12회) 이루어졌다. 통신사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은 매우 높아서 통신사 일행이 방문한 곳마다 정치가나 관료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무사를 비롯한 문인, 묵객, 서민들까지 통신사들에게 서화, 시문, 글씨 등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이를 병풍, 회관(두루마리 그림), 판화 등의 형태로 만들어져 널리 유행되었다. 한편, 통신사들은 국내로 돌아와 일본에서 겪은 견문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암행어사의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된 사절단은 조사 시찰단이다(1881, 고종 18).
- ② 해국도지, 영환지략을 국내에 소개한 사절단은 연행사(燕行使)이다(1840년대~1850년대). 즉 연행사란 청의 도읍인 연경(燕京:北京)에 간 사신을 일컫는다. 참고로 명에 보내는 사신을 '조천사(朝天使)'라 하였다.
- ③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등으로 구분된 사절단은 조선이 명과 청에 보낸 사신들을 일컫는 말이다(즉 ②에서 언급한 '조천사'와 '연행사'를 파견 목적에 따라 구분한 명칭). 하정사(賀正使)는 해마다 정월 초하룻날 새해를 축하(신년 축하)하러 가던 사신으로 정조사(正朝使)라고도 한다. 동지와 정월이 가까이 있으므로 동지사(冬至使)가 하정사(정조사)를 겸하였다. 또 성절사(聖節使)는 황제나 황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내던 사절이고, 천추사(天秋使)는 황태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내던 사절이다.
- ⑤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온 사절단은 영선사이다(1881~1882, 고종 18~19).

26 - 조선 정조(장용영 설치)

26.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하였다.
- ②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 ③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 ④ 청과의 경계를 정한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 ⑤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균역법을 제정하였다.

정답> ②

'탕평책'과 '수원화성'이 가장 크게 표시되어 있고, '문체반정', '사도세자', '주합루', '정약용' 등이 그 다음으로 크게 표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무예도보통지', '신해통공', '홍재'도 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검색창에 들어갈 왕은 조선의 제22대 왕인 정조(재위 1776-1800)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홍재(弘齋)'는 정조의 호(號)이다.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한 왕은 정조이다(1793, 정조 17).

오답 해설>

- ①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한 왕은 조선의 제17대 왕인 효종(재위 1649-1659)이다.
- ③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한 조선의 왕은 제9대인 성종(재위 1469-1494)이다(1485, 성종 16).
- ④ 청과의 경계를 정한 백두산정계비를 세운 조선의 왕은 제19대인 숙종(재위 1674-1720)이다(1712, 숙종 38).
- ⑤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균역법을 제정한 조선의 왕은 제21대인 영조(재위 1724-1776)이다(1750, 영조 26).

27 - 전국 주요 지역의 역사적 사실

27. (가)~(마) 지역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가) - 만상이 근거지로 삼아 청과의 무역을 전개하였다.
- ② (나) - 나석주가 조선 식산 은행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 ③ (다) -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 해방을 도모하였다.
- ④ (라) - 동학 농민군이 정부와 화해하는 약조를 맺었다.
- ⑤ (마) - 임진왜란 중 부사 송상현과 첨사 정발이 순절하였다.

정답> ②

(의열단원) 나석주(1892~1926)가 폭탄을 투척한 조선 식산 은행이 위치한 곳은 평양이 아니라 서울이다(1926.12).

오답 해설>

- ① 의주는 청과의 무역을 전개한 만상의 근거지이다. 옳은 사실이다.
- ③ 개성은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 해방을 도모한 곳이다(1198, 고려 신종 원년, 만적의 난). 옳은 사실이다.
- ④ 전주는 동학 농민군이 정부와 화해하는 약조를 맺은 곳이다(1894, 조선 고종 31, 전주 화약). 옳은 사실이다.
- ⑤ 부산은 임진왜란 중 부사 송상현과 첨사 정발이 순절한 곳이다(1592, 조선 선조 25). 옳은 사실이다.

28 - 동학 창시

28.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평안 감사가 “이달 19일에 관군이 정주성을 수복하고 두목 홍경래 등을 죽이거나 사로잡았습니다.”라고 임금께 보고하였다.
 (나) 경상도 안핵사 박규수는 “이번 진주의 백성들이 난을 일으킨 것은 오로지 전 우병사 백낙신이 탐욕을 부려 포악스럽게 행동한 까닭에서 연유한 것이었습니다.”라고 임금께 보고하였다.

- ① 최제우가 동학을 창시하였다.
- ② 정약종 등이 희생된 신유박해가 일어났다.
- ③ 오페르트가 남연군 묘 도굴을 시도하였다.
- ④ 공신 책봉 문제로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
- ⑤ 이인좌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 등이 난을 일으켰다.

정답> ①

(가)에 '평양 감사가, 이달 19일에 관군이 정주성을 수복하고 두목 홍경래 등을 죽이거나 사로잡았습니다'라고 임금께 보고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조선 순조 11년인 1811년 12월에 일어난 홍경래의 난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나)에는 '경상도 안핵사 박규수는, 이번 진주의 백성들이 난을 일으킨 것은 오로지 전 우병사 백낙신이 탐욕을 부려 포악스럽게 행동한 까닭에서 연유한 것이었습니다'라고 임금께 보고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철종 13년인 1862년 2월에 일어난 진주 농민 봉기(임술 농민 봉기)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수운 최제우(1824~1864)가 동학을 창시한 것은 철종 11년인 1860년 4월(음력)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② 정약종 등이 희생된 신유박해가 일어난 것은 순조 원년인 1801년의 일이다.
- ③ 오페르트가 남연군 묘 도굴을 시도한 것은 고종 5년인 1866년 5월의 일이다.
- ④ 공신 책봉 문제로 이괄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인조 2년인 1624년의 일이다(이괄의 난).
- ⑤ 이인좌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 등이 난을 일으킨 것은 영조 4년인 1728년의 일이다(이인좌의 난).

29 - 대전회통

29. (가) 법전이 편찬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동의보감을 집필하는 의관
- ② 만동묘 복구를 건의하는 유생
- ③ 훈민정음을 연구하는 집현전 학자
- ④ 계해약조의 초안을 작성하는 관리
- ⑤ 성균관에 탕평비 건립을 명하는 국왕

정답> ②

'대전통편 이후 80여 년 만에 새롭게 편찬된 법전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기존 법전을 기본으로 삼고, 각종 조례 등을 보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조선 시대 마지막 통일 법전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 법전'은 고종 2년인 1865년에 편찬된 대전회통임을 알 수 있다.

(흥선 대원군에 의해) 만동묘가 철폐된 것은 고종 2년인 1865년 5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허준(1539~1615)이] 동의보감 집필을 끝낸 것은 1610년(광해군 2)이다(광해군 5년인 1613년에 내의원에서 출간).
- ③ 훈민정음이 창제된 것은 세종 25년인 1443년의 일이다(세종 28년인 1446년에 반포).
- ④ (일본과) 계해약조가 체결된 것 역시 세종 25년인 1443년의 일이다. 계해약조는 조선이 쓰시마 도주와 맺은 세견선 등 무역에 관한 조약으로, 1426년(세종 8)에 있었던 3포의 개항을 비롯한 무역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정식으로 맺은 조약이다
- ⑤ 성균관에 탕평비가 건립된 것은 영조 18년인 1742년의 일이다.


30 - 병인박해(병인양요)

30.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신문

제△△호 ○○○○년 ○○월 ○○일

(가) 을/를 묘사한 희곡,
'조선의 순교자들' 발굴



프랑스 선교사 베르뇌 주교의 순교를 사실적으로 다룬 '조선의 순교자들' 초판 원본이 공개되었다. 베르뇌 주교는 흥선 대원군 집권 시기 천주교 신자들이 탄압 받은 (가) (으)로 새남터에서 처형되었으며, 그의 유해는 현재 절두산 성지에 봉안되어 있다.

베르뇌 주교

- ① 황사영 백서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
- ②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③ 정부가 청군의 출병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④ 사태 수습을 위해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 ⑤ 로즈 제독 함대가 강화도를 침입하는 빌미가 되었다.

정답> ⑤

(가)을/를 묘사한 희곡, '조선의 순교자들' 발굴이라는 제목 아래 '프랑스 선교사 베르뇌 주교(Siméon-François Berneux, 1814~1866)의 순교를 사실적으로 다룬 '조선의 순교자들' 초판 원본이 공개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베르뇌 주교는 흥선 대원군 집권 시기 천주교 신자들이 탄압받은 (가)(으)로 새남터*에서 처형되었으며, 그의 유해는 현재 절두산 성지에 봉안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 사건'은 병인박해를 알 수 있다(1866, 고종 3).

*새남터: 지금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앞 한강변의 모래사장이다. 현재 순교성지새남터기념성당이 세워져 있다.

병인박해는 프랑스의 로즈 제독 함대가 강화도를 침입하는 빌미가 되었다(병인양요, 1866.10).

오답 해설>

- ① 황사영 백서 사건의 원인이 된 사건은 순조 원년인 1801년에 일어난 신유박해이다(1801.1).
- ②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되는 결과를 가져온 사건은 1876년 2월에 체결된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이다(1876.4~6).
- ③ 정부가 청군의 출병을 요구하는 계기가 된 사건은 1882년(고종 19) 6월에 일어난 임오군란이다.
- ④ 사태 수습을 위해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된 사건은 1894년(고종 31) 1월에 일어난 고부 농민 봉기이다.

31 - 임오군란의 영향

31. 밑줄 그은 '이 사건'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2점]

사료로 보는 한국사

제1조
이하응을 보정성성(保定省城)으로 이송하여 청하도의 옛 관서에 거주시키도록 한다. …… 이하응에게 오가는 서신 일체는 밀봉할 수 없으며 간수 위원의 검열을 거쳐야 보낼 수 있다. 밀봉되었거나 한글로 된 서신은 위원이 반송한다.

[해설] 청으로 끌려간 흥선 대원군(이하응)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의 일부이다.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과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일어난 이 사건을 진압한 청은 그 책임을 물어 흥선 대원군을 납치해 갔다.

- ①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 ② 어재연 부대가 광성보에서 항전하였다.
- ③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세워졌다.
- ④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 ⑤ 일본 군함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정답> ④

제1조로 '이하응을 보정성성(保定省城)으로 이송하여 청하도의 옛 관서에 거주시키도록 한다. …… 이하응에게 오가는 서신 일체는 밀봉할 수 없으며 간수 위원의 검열을 거쳐야 보낼 수 있다. 밀봉되었거나 한글로 된 서신은 위원이 반송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해설로 '청으로 끌려간 흥선 대원군(이하응)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의 일부이다.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과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일어난 이 사건을 진압한 청은 그 책임을 물어 흥선 대원군을 납치해 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이 사건'은 고종 19년인 1882년 6월에 일어난 임오군란임을 알 수 있다.

임오군란 결과 조선과 청 사이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1882.8).

오답 해설>

- ① 삼정이정청이 설치된 것은 철종 13년인 1862년 5월의 일이다.
- ② 어재연 부대가 광성보에서 항전한 것은 고종 8년인 1871년 6월의 일이다(신미양요).
- ③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세워진 것 역시 고종 8년인 1871년 6월의 일이다.
- ⑤ 일본 군함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한 것은 고종 12년인 1875년 9월의 일이다.

32 - 배재 학당

32. 밑줄 그은 '이곳'이 운영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배재 학당에 입학하는 학생
- ② 영선사 일행으로 청에 가는 생도
- ③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 참석하는 외교관
- ④ 연무당에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는 관리
- ⑤ 제너럴 셔먼호의 통상 요구를 거부하는 평양 관민

정답> ①

'헤론(John W. Heron, 1856~1890)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이곳에서 의사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는 초기에 운영을 주도했던 알렌(1858~1932)이 미국으로 돌아간 후 이곳의 진료 업무를 전담하였으며, 고종에게 2품의 품계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이곳'은 광혜원임을 알 수 있다(1885.2, 3월에 '제중원'으로 개명).

배재 학당이 세워진 것은 1885년 8월이다.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1858~1902)가 서울에 세운 근대식 중등 교육 기관이다.

오답 해설>

- ② 영선사가 청에 파견된 것은 고종 18년인 1881년 9월의 일이다(~1882.11).
- ③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이 열린 것은 고종 21년인 1884년 12월의 일이다(갑신정변).
- ④ (강화도) 연무당에서 일본과 조약이 체결된 것은 고종 13년인 1876년 2월의 일이다(조일 수호 조규, 일명 '강화도 조약').
- ⑤ 제너럴 셔먼호의 통상 요구를 평양 관민들이 거부한 것은 고종 3년인 1866년 9월의 일이다(제너럴 셔먼호 사건).

33 - 제1차 갑오개혁 이후의 사실들

33.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보 기>

- ㉠.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 ㉡. 한성순보가 발행되었다.
- ㉢.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되었다.
- ㉣.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을 독립시켰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정답> ⑤

'군국기무처 의안에서 공노비와 사노비에 대한 법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보았다.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대화는 제1차 갑오개혁 때의 일임을 알 수 있다(1895.7~12).

㉢. 교육입국 조서가 반포된 것은 고종 32년인 1895년 2월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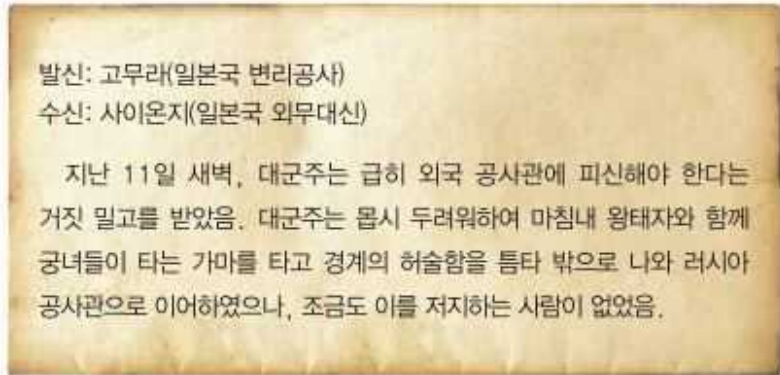
㉣.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을 독립시킨 것은 제2차 갑오개혁 때의 일이다(1894.12~1895.8).

오답 해설>

- ㉠.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된 것은 고종 18년인 1881년 5월의 일이다.
- ㉡. 한성순보가 발행된 것은 고종 20년인 1883년 10월의 일이다(박문국 설치).

34 - 을미사변

34.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이 발생한 배경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을미사변이 일어났다.
- ② 원수부가 설치되었다.
- ③ 러일 전쟁이 발발하였다.
- ④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었다.
- ⑤ 용암포 사건이 발생하였다.

정답> ①

발신이 '고무라 일본국 변리공사'이고, 수신이 '사이온지 일본국 외무대신'으로 되어 있다. 이어 '지난 11일 새벽, 대군주는 급히 외국 공사관에 피신해야 한다는 거짓 밀고를 받았고, 대군주는 몹시 두려워하여 마침내 왕태자와 함께 궁녀들이 타는 가마를 타고 경계의 허술함을 틈타 밖으로 나와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어하였으나, 조금도 이를 저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에 나타난 사건은 고종 33년인 1896년 2월에 일어난 '아관 파천'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아관 파천이 발생한 배경으로는 명성 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을 들 수 있다(1895.10.8).

오답 해설>

- ② 원수부가 설치된 것은 고종 36년(광무 3)인 1899년 6월의 일이다.
- ③ 러일 전쟁이 발발한 것은 1904년 2월의 일이다.
- ④ 한일 신협약이 체결된 것은 1907년 7월의 일이다.
- ⑤ 용암포 사건이 발생한 것은 1903년 4월의 일이다. 러시아는 이때 용암포를 점령하고 같은 해 7월 조차를 요구하였다.

35 - 조일 통상 장정

35. 밑줄 그은 '장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되었다.
- ② 방곡령 시행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다.
- ③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④ 일본인 재정 고문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 ⑤ 부산 외 2개 항구를 개항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정답> ②

왼쪽 말풍선에 '이번 장정의 체결로 우리의 관세권을 일정 부분 회복했다고 하네'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그렇지만 이 장정으로 일본에 최혜국 대우를 인정해 주었다더군'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장정'은 고종 20년인 1883년 7월에 체결된 조일 통상 장정임을 알 수 있다. 조일 통상 장정에서 방곡령 시행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다.

오답 해설>


- ①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것은 한성 조약이다(1885.1).
- ③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된 것은 제물포 조약이다(1882.8).
- ④ 일본인 재정 고문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것은 제1차 한일 협약이다(1904.8).
- ⑤ 부산 외 2개 항구를 개항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은 조일 수호 조규, 즉 '강화도 조약'이다(1876.2).

36 - 독립 협회

36.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이달의 독립운동가

국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남궁억



- 생몰년: 1863~1939
- 생애 및 활동

서울 정동에서 태어났다. 동문학에서 교육을 받았다. 1896년 서재필 등과 함께 (가)을/를 창립하여 활동하였다.

(가)의 의회 설립 운동이 공화제를 수립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받아 이상재 등과 함께 체포되었다. 러시아와 일본의 한국 침략을 고발하는 논설과 기사를 실은 황성신문 사장을 역임하였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①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②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 ③ 영은문이 있던 자리 부근에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 ④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 ⑤ 독립 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 공채를 발행하였다.

정답> ③
 '국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남궁억(1863~1939)'이라는 제목 아래 그의 생애 및 활동이 나와 있다. '서울 정동에서 태어나고, 동문학에서 교육을 받았다. 1896년 (7월) 서재필과 함께 (가)을/를 창립하여 활동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가)의 의회 설립 운동이 공화제를 수립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받아 이상재 등과 함께 체포되었다. 러시아와 일본의 한국 침략을 고발하는 논설과 기사를 실은 황성신문 사장을 역임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 단체'는 독립 협회임을 알 수 있다. 독립 협회는 1897년 11월 영은문이 있던 자리 부근에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오답 해설>
 ①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한 단체는 대한 자강회이다(1907.8).
 ②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와해된 단체는 신민회이다(1911.9).
 ④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 조사단을 파견한 단체는 신간회이다(1929.11).
 ⑤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 공채를 발행한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이다(1919.11).

37 - 헤이그 특사 파견

37. (가), (나) 조약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책임을 지며 한국 정부는 금후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 폐하의 아래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에 주재하고 직접 한국 황제 폐하를 궁중에서 알현할 권리를 가진다.

(나)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친다.

제4조 한국 고등 관리를 임명하고 해임시키는 것은 통감의 동의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한다.

- ①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다.
- ② 관민 공동회가 개최되어 헌의 6조를 결의하였다.
- ③ 동학 농민군이 우금치에서 관군 및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 ④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 ⑤ 고종이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였다.

정답> ⑤
 (가)의 제2조에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책임을 지며 한국 정부는 금후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제3조에는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 폐하의 아래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에 주재하고 직접 한국 황제 폐하를 궁중에서 알현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가)'는 1905년 11월 17일에 강요된 제2차 한일 협약, 이른바 '을사늑약'임을 알 수 있다.
 (나)의 제2조에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제4조에는 '한국 고등 관리를 임명하고 해임시키는 것은 통감의 동의에 의하여 집행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제5조에는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나)'는 1907년 7월 24일에 강요된 한일 신협약, 이른바 '정미 7조약'임을 알 수 있다.
 고종이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를 파견한 것은 1907년 4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①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한 것은 1908년 1월의 일이다(1908.1.28).
 ② 관민 공동회가 개최되어 헌의 6조가 결의된 것은 1898년 10월의 일이다(1898.10.29).
 ③ 동학 농민군이 우금치에서 관군 및 일본군에 맞서 싸운 것은 1894년 11월의 일이다(1894년 11월 9일~11월 12일).
 ④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것은 고종 22년인 1885년 4월의 일이다(~1887.2).

38 - 멕시코 지역의 민족 운동

38. (가) 지역에서 있었던 민족 운동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권업회의 기관지로 권업신문이 발간되었다.
- ② 독립군 양성을 위한 승무 학교가 설립되었다.
- ③ 북로 군정서가 조직되어 무장 투쟁을 실시하였다.
- ④ 주권 재민을 천명한 대동 단결 선언서가 작성되었다.
- ⑤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2·8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정답> ②

'이 사진은 1905년 (가)의 유카탄반도로 계약 노동 이민자들을 수송했던 일포드호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주택 무료 임대, 높은 임금 등을 내건 모집 광고를 믿고 이 화물선을 탄 천여 명의 한국인들은 한 달 넘게 걸려 에네켄 농장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광고와 달리 사실상 노예와 다를 없는 생활을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 지역'은 멕시코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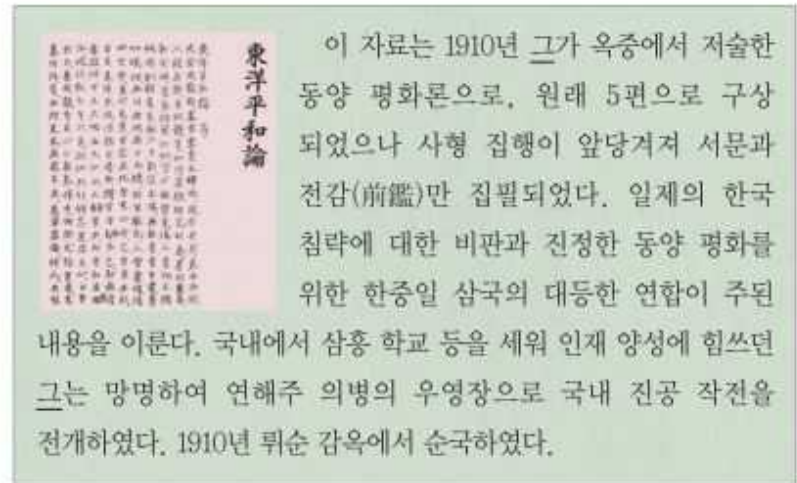
멕시코 유카탄반도의 메리다 지역에서 독립군 양성을 위한 승무 학교가 설립되었다(1910.11). 지역회 한인 회장 이근영(?~?)의 주도로 수십 명의 한인 청년을 모아 사관(士官)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오답 해설>

- ① 권업회의 기관지로 권업신문이 발간된 지역은 연해주이다. 1911년 12월에 권업회가 조직되었고, 1912년 4월에 권업신문이 창간되었다.
- ③ 북로 군정서가 조직되어 무장 투쟁을 실시한 지역은 만주의 북간도이다. 북로 군정서로 개편된 것은 1919년 12월의 일이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인준). 총재는 서일(1881~1921), 총사령관은 김좌진(1889~1930), 연대장 이범석(1900~1972) 등이 임명되었다.
- ④ 주권 재민을 천명한 대동단결 선언서(일명 '대동단결 선언문')가 작성된 지역은 중국 상하이이다(1917.7). 2015년 12월 대한민국 국가등록문화재 제652호로 지정되었다.
- ⑤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2·8 독립 선언서가 발표된 지역은 일본 도쿄이다(1919.2).

39 - 안중근 의사

39.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 ② 베델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발간하였다.
- ③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 ④ 서전서숙을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 ⑤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 의군부를 조직하였다.

정답> ③

'이 자료는 1910년 그가 옥주에서 저술한 동양 평화론으로, 원래 5편으로 구상되었으나 사형 집행이 앞당겨져 서문과 전감(前鑑)만 집필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일제의 한국 침략에 대한 비판과 진정한 동양 평화를 위한 한중일 삼국의 대등한 연합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삼흥 학교 등을 세워 인재 양성에 힘쓰던 그는 망명하여 연해주 의병의 우영장으로 국내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다. 1910년 뤼순 감옥에서 순국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그'는 안중근(1879~1910)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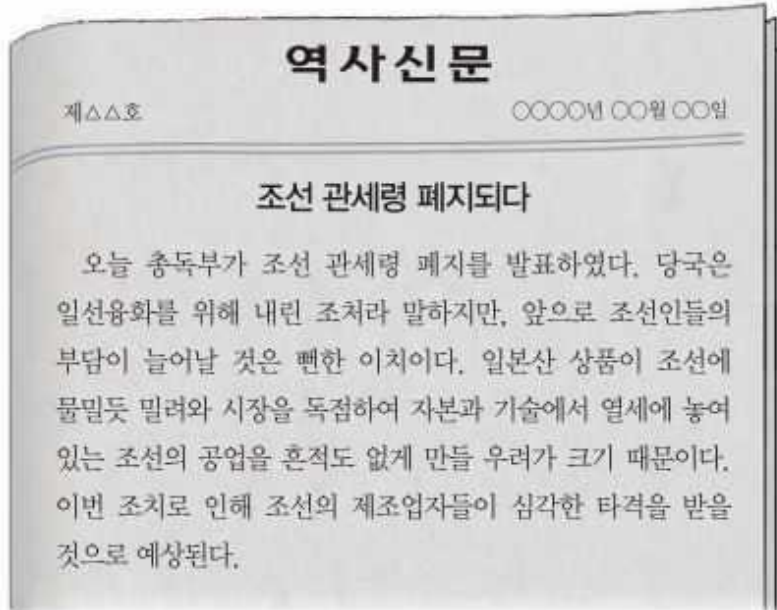
안중근은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오답 해설>

- ①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대표적인) 인물은 흥범도(1868~1943)이다(1920.6).
- ② 베델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발간한 인물은 우강 양기탁(1871~1938)이다(1904.7).
- ④ [북간도(용정)에서] 서전서숙을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실시한 (대표적인) 인물은 보재 이상설(1870~1917)이다(1906.8).
- ⑤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 의군부를 조직한 인물은 돈헌 임병찬(1851~1916)이다(1912.9).

40 - 물산 장려 운동

40. 다음 기사가 보도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 ② 물산 장려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③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이 실시되었다.
- ④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하는 회사령이 공포되었다.
- ⑤ 황국 중앙 총상회의 상권 수호 운동이 전개되었다.

정답> ②

'조선 관세령 폐지되다'는 제목 아래 '오늘 총독부가 조선 관세령 폐지를 발표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당국은 일선융화를 위해 내린 조치라 말하지만, 앞으로 조선인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은 뻔한 이치이다. 일본산 상품이 조선에 물밀듯 밀려와 시장을 독점하여 자본과 기술에서 열세에 놓여 있는 조선의 공업을 흔적도 없게 만들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조선의 제조업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일제 강점기에 조선 관세령이 폐지된 것은 1923년 4월의 일이다(1912년 4월 시행). 이후 우리(조선) 민족의 경제적 자립성을 지키려는 물산 장려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오답 해설>

- ①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된 것은 1908년 12월의 일이다(1945년 8월 일제 패망까지 지속).
- ③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이 실시된 것은 1905년 7월의 일이다(~1909.12).
- ④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하는 회사령이 공포된 것은 1910년 12월의 일이다.
- ⑤ 황국 중앙 총상회의 상권 수호 운동이 전개된 것은 광무 2년인 1898년 7월의 일이다.

41 - 6·10 만세 운동

41. 다음 대화에 나타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원산 총파업의 노동자들과 연대하였다.
- ② 치안 유지법이 제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③ 국민 대표 회의가 개최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④ 한일 학생 간 충돌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 ⑤ 민족 협동 전선인 신간회 결성에 영향을 미쳤다.

정답> ⑤

왼쪽 말풍선에 '얼마 전 종로 일대에서 일어난 만세 시위 소식을 들었는가? 이날 체포된 학생들에 대한 공판이 곧 열린다더군'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융희 황제의 인산일에 학생들이 격문을 뿌리고 만세를 외친 그 사건 말씀이시죠? 사전에 권오설 선생 등이 경찰에게 체포되어서 걱정이었는데, 학생들 덕분에 시위가 가능했지요'라는 답변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대화에 나타난 민족 운동은 6·10 만세 운동임을 알 수 있다(1926.6).

6·10 만세 운동은 사회주의 세력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함께 준비한 운동으로, 이후 민족 협동 전선인 신간회 결성에 영향을 미쳤다(1927.2).

오답 해설>

- ① 원산 총파업이 일어난 것은 1929년 1월의 일이다(1929.1.13~4.6).
- ② 치안 유지법이 제정·공포된 것은 1925년 4월이고, 시행된 것은 같은 해 5월의 일이다.
- ③ 국민 대표 회의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것은 1923년 1월의 일이다(1923.1.3~6.7).
- ④ 한일 학생 간 충돌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것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1929.11~1930.3).

42 - 일제 강점기 말의 사실

42. 밑줄 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 ① 만주 군벌과 일제가 미쓰야 협정을 체결하였다.
- ② 한국인에 한해 적용되는 조선 태형령이 공포되었다.
- ③ 내선일체를 강조한 황국 신민 서사의 암송이 강요되었다.
- ④ 강압적인 통치를 목적으로 헌병 경찰 제도가 실시되었다.
- ⑤ 평양 등지에서 반중 폭동을 초래한 만보산 사건이 일어났다.

정답> ③

'난징 리지상 위안소 구지(舊址) 진열관에 있는 '만석의 위안부' 동상은 고(故) 박영심 할머니(1921~2006)를 모델로 조성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중일 전쟁을 일으킨 일제가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에 운영된 이 위안소는 박영심 할머니의 피해 증언 등에 힘입어 기념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시기'는 일제 강점기 말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박영심 할머니는 태평양 전쟁 중 연합군이 촬영한 사진 속에 있던 일본군 위안부 여성 4명 중 유일한 임신 부이자 생존자로 북한에 거주하다 사망하였다. 참고로 중일 전쟁 이듬해인 1938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내선일체를 강조한 황국 신민 서사의 암송이 강요된 것은 중일 전쟁 발발 직후인 1937년 10월부터이다.

오답 해설>

- ① 만주 군벌과 일제가 미쓰야 협정을 체결한 것은 1925년 6월의 일이다.
- ② 한국인에 한해 적용되는 조선 태형령이 공포된 것은 1912년 4월의 일이다(~1920.3).
- ④ 강압적인 통치를 목적으로 헌병 경찰 제도가 실시된 것은 1910년대이다(일종의 '무단 통치').
- ⑤ 평양 등지에서 반중 폭동을 초래한 만보산 사건이 일어난 것은 1931년 7월의 일이다. 만보산 사건이란 1931년 7월 2일 중국 지린성 창춘현 만보산 지역에서 일제의 술책으로 조선인 농민과 중국인 농민이 벌인 유혈 사태를 가리킨다.

43 - 약산 김원봉의 활동

43. 밑줄 그은 '그'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연해주에서 대한 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였다.
- ② 대한 광복회의 총사령으로 친일파를 처단하였다.
- ③ 중국 국민당과 협력하여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였다.
- ④ 만주 사변 이후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 ⑤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하는 조선 혁명 선언을 집필하였다.

정답> ③

'이곳 난징의 천녕사 옛터는 독립군 간부 양성을 위해 설립된 조선 혁명 군사 정치 간부 학교의 훈련 장소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의열단 단장이었던 그가 설립한 이 학교는 1932년부터 3년 동안 운영되었으며 윤세주, 이육사를 비롯한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그'는 약산 김약봉(1898~1958)임을 알 수 있다.

김원봉은 중국 국민당과 협력하여 1938년 10월 중국 한구(漢口)에서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였다. 참고로 조선 의용대는 당시 중국 관내(關內)*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였다.

*관내를 관중(關中)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중국 본토 지역을 가리킨다(만주, 즉 동북 3성은 관외). 예전 진(秦)나라 때 수도인 장안 일대 주변에 4개의 관문을 설치한 것에서 연유한다.

오답 해설>

- ① 연해주에서 (일종의 망명 정부인) 대한 광복군 정부를 수립(을 주도)한 인물로는 보재 이상설(1870~1917)과 성재 이동휘(1873~1936)를 들 수 있다[1914년 상반기, 이상설이 대한 광복군 정도령(正都領), 이동휘가 부도령].
- ② 대한 광복회의 총사령으로 친일파를 처단한 인물은 박상진(1884~1921)이다.
- ④ 만주 사변 이후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한 인물은 한국 독립군의 총사령 지청천(1888~1957)이다(1933.7).
- ⑤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하는 조선 혁명 선언을 집필한 인물은 단재 신채호(1880~1936)이다(1923.1).

44 - 단성사

44.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조사 보고서

△학년 △반 이름: ○○○

■ 주제: 경성의 거리 풍경

일제 강점기 경성은 청계천을 경계로 한국인이 사는 북촌과 일본인이 주로 사는 남촌으로 나뉘어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도시 빈민인 토막민은 청계천이나 도시 외곽에 터를 잡았다.

토막



도시 빈민들이 거적 등을 둘러 만든 집

단성사



(가)

경성역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가 1925년 건축

미쓰코시 경성지점



식민지 조선의 대표 백화점



- ① 나운규의 아리랑이 개봉된 장소
- ② 기미 독립 선언서가 인쇄된 장소
- ③ 조선 형평사 창립 대회가 개최된 장소
- ④ 전형필이 수집한 문화재가 전시된 장소
- ⑤ 강우규가 일본 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장소

정답> ①

조사 보고서의 주제로 '경성의 거리 풍경'이 나와 있다. 이어 '토막, 단성사, 경성역, 미쓰코시 경성 지점'이 사진 및 지도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단성사는 나운규(1902~1937)의 아리랑이 개봉된 장소이다 (1926.10.1).

오답 해설>

- ② 기미 독립 선언서가 인쇄된 장소는 천도교 산하의 인쇄소인 보성사이다(1919.2.27).
- ③ 조선 형평사 창립 대회가 개최된 장소는 경남 진주이다 (1923.4.24). 구체적으로는 진주시 대안동 진주 청년 회관이다.
- ④ 간송 전형필(1906~1962)이 수집한 문화재가 전시된 장소는 서울의 간송미술관이다. 서울 성북구 성북로에 위치한다.
- ⑤ 월우 강우규(1859~1920)가 일본 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장소는 서울역이다(1919.9.2).

45 -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

45. 다음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우리는 삼천만의 한국인 및 정부를 대표하여 중국, 영국, 미국, …… 기타 국가들이 일본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을 삼가 축하한다. 이것은 일본을 격파(擊敗)시키고 동아시아를 재건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이에 특별히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한국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여한 상태이며 하나의 전투 단위로써 추축국에 전쟁을 선포한다.
2. 1910년의 합병 조약 및 일체 불평등 조약이 무효임을 재차 선포한다. 아울러 반침략 국가가 한국에 지닌 합리적 기득 권익을 존중한다.
3. 왜구를 한국, 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완전히 축출하기 위하여 혈전으로 최후의 승리를 거둔다.

- ①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다.
- ② 국내 비밀 행정 조직으로 연통제를 두었다.
- ③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 ④ 의거 활동을 위해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였다.
- ⑤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하였다.

정답> ⑤

'우리는 삼천만의 한국인 및 정부를 대표하여 중국, 영국, 미국, …… 기타 국가들이 일본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을 삼가 축하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것은 일본을 격파(擊敗)시키고 동아시아를 재건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이에 특별히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자료(성명서)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1941년 12월 10일 발표한 '대일 선전 성명서'임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45년 초부터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하였다(같은 해 3월 국내 정진군 총사령부 조직). *미국 전략 사무국(OSS, Office of Strategic Service)

오답 해설>

- ① (중국)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이 창설된 것은 1940년 9월의 일이다(1940.9.17).
- ② 국내 비밀 행정 조직으로 연통제를 둔 것은 1919년 7월의 일이다(1919.7.10, 국무령령 제1호).
- ③ 파리 강화 회의에 (우사 김규식을 통해) 독립 청원서를 제출한 것은 1919년 5월의 일이다.
- ④ 의거 활동을 위해 한인 애국단을 조직한 것은 1931년 10월의 일이다.

46 - 제주(도) 4·3 사건

46.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허정 과도 내각이 성립되는 배경이 되었다.
- ② 전개 과정에서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되었다.
- ③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 ④ 귀속 재산 처리를 위한 신한 공사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 ⑤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정답> ③

'(가) 옥살이 335명, 70여 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라는 제목 아래 '제주도에서 발생한 (가) 당시 토벌대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세력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초토화 작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법원은 오늘 이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335명에 대해서,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 사건'은 1948년 4월에 일어난 제주(도) 4·3 사건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1월의 일이다(2000.1.12). 특별법의 명칭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 신장과 민주 발전 및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21년 2월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3월 16일 국무 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특별 재심 조항이 신설되고, 국가 차원의 피해 보상 근거를 명시해 명예 회복에 더 힘이 실릴 수 있게 되었다.

오답 해설>

- ① 허정 과도 내각이 성립되는 배경이 된 것은 4·19 혁명이다(1960).
- ②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된 것은 1976년 3월의 일이다.
- ④ 귀속 재산 처리를 위한 신한 공사가 설립된 것은 1946년 3월의 일이다(~1948.3).
- ⑤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사건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2011년 등재).

47 - 이승만 정부 시기의 사실

47.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을 제거하였다.
- ② 인민 혁명당 재건위 사건을 조작해 관련자를 탄압하였다.
- ③ 정부에 비판적인 경향신문을 폐간하는 등 언론을 통제하였다.
- ④ 여당 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 3·15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다.
- ⑤ 반민 특위를 이끌던 국회 의원들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체포하였다.

정답> ②

'독립운동가이자 유학자인 김창숙 선생이 오늘 기자 회견을 열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회견에서 선생은 자유당이 강도적으로 통과시킨 보안법은 무효이며, 과거 부산 정치 파동 때와 같이 반독재 구국 범국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며 여생을 민주주의를 위하여 바치겠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상황은 이승만 정부에 의해 신국가보안법이 통과된 1958년 12월의 일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인민 혁명당 재건위 사건(제2차 인민 혁명당 사건)을 조작해 관련자를 탄압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의 일이다(1974.5~1975.4).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지 18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1975년 4월 9일 서도원·김용원·이수병·우홍선·송상진·여정남·하재완·도예종 8명에 대한 사형이 서울구치소에서 집행되었다. 당시 이들의 선고 통지서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 군 검찰에 접수되었으며, 서울구치소에서도 선고 통지서가 도착하기도 전에 사형을 집행했다는 정황이 문서로 드러났다. 국제엠네스티는 다음날인 4월 10일에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법학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도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이 '사법 살인'이라며,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 암흑의 날'로 선포하였다. 참고로 제1차 인민 혁명당 사건이 일어난 것은 1964년 8월의 일이다(~1965.9).

오답 해설>

- ①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사형된 것은 1959년 7월의 일이다.
- ③ 정부에 비판적인 경향신문이 폐간된 것은 1959년 4월의 일이다.
- ④ 여당 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 3·15 부정 선거를 자행한 것은 1960년 3월의 일이다.
- ⑤ 반민 특위를 이끌던 국회 의원들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체포하기 시작한 것은 1949년 4월의 일이다. 일명 '국회 프락치 사건'이다(1949년 4월 말~8월 중순).

48 -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

48.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포항 제철소 1기 설비가 준공됐어요.
- ②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했어요.
- ③ 3저 호황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증가했어요.
- ④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를 실시했어요.
- ⑤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로 노사정 위원회가 구성됐어요.

정답> ①

'이 노래는 새마을 운동을 처음 시작한 정부에서 보급한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새마을 운동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표로 근면, 자조, 협동을 구호로 내걸었다. 이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해 말해 보자'는 내용이 나와 있다. 새마을 노래 가사도 제시되어 있는 바 이를 통해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해 묻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새마을 운동, 1970년 4월부터 시작).

포항 제철소 1기 설비가 준공된 것은 1973년 7월의 일이다(1973.7.3, 이른바 '7·3 준공', 1970년 4월 1일 착공).

오답 해설>

- ②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6월의 일이다. 참고로 발효된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2년 3월이다.
- ③ 3저 호황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증가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의 일이다(1986~1988).
- ④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가 실시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3년 8월의 일이다(1993.8.12).
- ⑤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로 노사정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김대중 정부 출범 직전인 1998년 1월의 일이다(1998.1.15).

49 - 6월 민주 항쟁

49.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유신 체제가 붕괴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②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였다.
- ③ 양원제 국회가 출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④ 신군부의 비상 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었다.
- ⑤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정답> ⑤

주제로 '현행 헌법 체제를 가져온 (가) 자료집 만들기'가 나와 있다. 이어 (가) 중 인상적인 장면을 그려 설명과 함께 올랐던 것들을 살펴보면, '박종철 열사 추모 시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민들', '6·29 선언에 기뻐하는 시민들', '이한열 열사 장례식 행렬'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제시된 '(가) 민주화 운동'은 1987년 6월에 일어난 6월 민주 항쟁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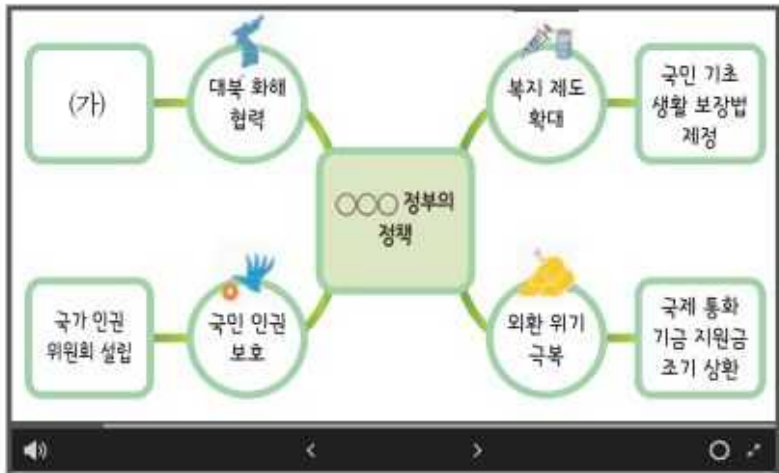
6월 민주 항쟁에서 학생과 시민들은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오답 해설>

- ① 유신 체제가 붕괴되는 계기가 된 민주화 운동은 1979년 10월에 발생한 부마 민주 항쟁이다.
- ②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한 민주화 운동은 1964년 6월에 일어난 6·3 시위이다.
- ③ 양원제 국회가 출현하는 결과를 가져온 민주화 운동은 1960년 4월에 일어난 4·19 혁명이다.
- ④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된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에 일어난 5·18 민주화 운동이다.

50 - 김대중 정부의 정책(대북 화해 협력)

50.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 ②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 ③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서명
- ④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 실현
- ⑤ 남북한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 공단 조성 합의

정답> ⑤

'○○○ 정부의 정책'으로 '대북 화해 협력-(가)'가 나와 있다. 이어 '복지 제도 확대-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정', '국민 인권 보호-국가 인권 위원회 설립', '외환 위기 극복-국제 통화 기금 지원금 조기 상환'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 정부'는 '김대중 정부'임을 알 수 있다(1998.2~2003.2)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제정된 것은 1999년 9월(실시는 2000년 10월)이고, 국가 인권 위원회가 설립된 것은 2001년 11월이다(2001.11.25). 또 국제 통화 기금 지원금을 조기 상환하여 외환 위기를 극복한 것은 2001년 8월이다((2001.8.23).

남북한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 공단 조성에 합의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의 일이다. 2000년 6월,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 선언' 이 이루어졌고, 동년 8월 한국의 현대아산(주)과 북한 사이에 공업지구 건설이 합의되었다. 그러다 2002년 8월에 개성 공단 착공 추진이 최종 합의되었다.

오답 해설>

- 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9월의 일이다(1991.9.18).
- ②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 7월의 일이다(1972.7.4).
- ③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이 서명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12월의 일이다(1991.12.31).
- ④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 실현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5년 9월의 일이다(1985.9.20-23). 이때 예술 공연단도 함께 교류하였다.

- 이 상 -